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부여안은 치맛자락, 하얀 눈바람이 흩날린다. 골이고 봉우리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사뭇 무릎까지 빠진다. 나는 예가 어디 저 북극이나 남극 그런 데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파랗게 하늘이 얼었다. 하늘에 나는 후 — 입김을 뿜어 본다. 스러지며 올라간다. 고요—하다. 너무 고요하여 외롭게 나는 태고(太古)! 태고에 놓여 있다. [A]

2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 겔가? —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짝에 묻힌다. 외롭게 묻어라.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 포기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러라. 한 마리 멧새도 와 울어라. 달밤엔 두견! 두견도 와 울어라.

언제 새로 다른 태양,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 본다. [B]

3

나는 눈을 감어 본다. 순간 번뜩 영원이 어린다…… 인간들! 지금 이 땅 위에서 서로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멸하지 않고 오래 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우리 족속도 이어 자꾸 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오래 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C]

언제 이런 설악까지 왼통 꽃동산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로 화창하게 살아 볼 날이, 그립다. 그립다.

— 박두진, 「설악부」 —

(나)

내 마지막으로 들 집이 비옷나무 우거진 기슭산 아니면 또 어디이겠는가
연지새 짝지어 하늘 날다가 깃털 하나 떨어뜨린 곳
어욱새 속새 덮인 흙산 아니고 또 어디이겠는가

마음은 늘 욕심 많은 몸을 꾸짖어도
몸은 제 길들여 온 욕심 **한 가닥도** 놓지 않고 붙든다
도시 사람들 두릅나무 베어 내고 그곳에 채색된 단청(丹靑) 올려서
다람쥐 들쥐들 제 짧은 잠, 추운 꿈 꿀 **혈거(穴居)마저** 줄어든다
먼 곳으로 갈수록 햇빛도 더 멀리 따라와
내 여린 어깨를 토닥이는 걸 보면
내 어제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열렬했던 말들이
가시 되어 일어선다

산골 처녀야, 눈 시린 십자수(十字繡) 그만두고
여치 메뚜기 날개 접은 들판의 콩밭 누렁잎 보아라
길 끝에 무지가 차라리 편안인 산들이 누워 있고
산 끝에 **예지*도** 거추장스러워 피라미들에게 맡겨 버린
물이 마음 풀고 흐르고 있다

내 이 길 억새 속으로 걸어가면
배춧잎 같은 정맥 돋은 손을 쉬고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어 한 사흘 나뭇가지에 걸어 둘 수 있을까
내 늑골 밑에서 보채던 달력과 일과표와
눈 닿으면 풍금 소리를 내며 일어서던 글자들도
등 두드려 한 열흘 잠재울 수 있을까

먼저 간 발자국들이 내 발길에 지워지고
내 발자국 또한 뒤이은 발길에 이내 지워지고 말
한쪽 끝에는 대구(大邱)*를 달고 다른 쪽에는 은해사(銀海寺)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는 길

— 이기철, 「길의 노래」 —

* 예지 :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뛰어난 지혜.
* 대구 : 경상북도에 있는 대도시.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③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④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화자의 내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2. [A] ~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는 '흩날린다', '뒤덮였다', '빠진다'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② [A]는 '고요—하다'에 이어 '너무 고요하여'를 제시하여 화자가 있는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③ [B]는 '산'에서 '양지짝'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백골'이 묻힐 곳이 부정적 공간으로 바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④ [B]는 '내 푸른 무덤'에 '도라지꽃', '산나비', '멧새', '두견' 등이 어울리는 모습을 제시하여 다양한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⑤ [C]는 '살아 볼 날'을 '그립다'와 연결하여 화자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세계를 떠올려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한 가닥도'는 화자가 욕심을 조금도 덜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② '혈거마저'는 작은 생명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부각한다.
③ '칠판 앞에서만'은 한결같은 태도로 살고 있지 못한 삶에 성찰적 시선이 이르고 있음을 부각한다.
④ '예지도'는 인간의 지혜로운 생각마저도 자연에서는 성가신 것이 된다는 점을 부각한다.
⑤ '늘 내일로만'은 항상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을 부각한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가)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 항구적으로 세대를 이어 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나)는 무위(無爲)한 자연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희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두 작품은 자연의 가치를 조명하며 인간 삶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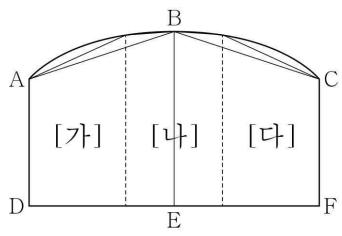
① (가)에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통해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겠군.
② (가)에서 '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오래 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고 한 것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며 항구적으로 세대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③ (나)에서 '달력'과 '일과표'가 '내 늑골 밑에서 보채'었다고 한 것은,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열망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④ (나)에서 '길'이 '한쪽 끝'에는 '대구'를, '다른 쪽'에는 '솔바람 소리'를 달고 있다고 한 것은, 자연의 세계를 희구하면서도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⑤ (가)에서 '산'을 '내 영원한 어머니'로, (나)에서 '비옷나무 우거진 기슭산'을 '내 마지막으로 들 집'으로 표현한 것은,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투영된 것이겠군.

[5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박의 진수란 새로 건조한 배를 처음 물에 띄우는 것을 말한다. 선박 진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드라이 독]이다. 드라이 독은 선박 출입이 가능하도록 육상에 직육면체 형태로 땅을 파서 만든다. 바다와 접한 독의 입구에는 독의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는 수문을 설치하는데, 수문의 내부는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부력을 활용하여 수문을 열고 닫기 위한 것이다. 수문에 물을 채워 수중으로 가라앉혀 드라이 독의 입구를 닫고, 독 내부의 물을 모두 퍼내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면, 독 내부에서는 독 외부에서 제작된 선체 구조물을 조립하는 등의 선박 건조가 이루어진다.

진수 작업은 선박 건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작된다. 먼저 독의 수문을 닫은 채 독 내부로 물을 채운다. 처음에는 물을 선박의 흘수보다 약간 깊은 정도까지 채워 선박의 누수나 균형 등을 확인하는데, 이를 1차 진수라고 한다. 흘수는 물에 떠 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이다. 선박의 흘수를 계산하려면 물에 잠겨 있는 물체가 중력에 반해 밀어 올려지는 힘인 부력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을 밀어낸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로 이는 ㉠<u>배수량</u>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에 떠 있는 선박은 부력의 크기와 배수량이 같다. 선박의 배수량은 선박 자체의 무게와 화물, 연료 등의 무게를 합한 것으로,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밀어낸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곱한 값이 된다. 따라서 1차 진수에서 독 내부로 주입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흘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박의 물에 잠기게 될 부분의 부피를 계산해야 한다.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이 직육면체라면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선박은 대부분 유선형이고, 특히 뱃머리인 선수 부분과 배의 뒷부분인 선미 부분은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피 계산에 사용되는 것이 심프슨 공식이다. 심프슨 공식은 면적을 계산하고자 하는 도형을 여러 개의 작은 사다리꼴로 나누어, 그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해 합산함으로써 실제 도형 면적의 근삿값을 구하는 공식이다. <그림>에서 선박의 수직 단면과 유사한 도형 ABCFD의 면적을 계산하려면, 사다리꼴 ABED와 사다리꼴 BCFE의 면적을 계산해 합산하면 된다. 하지만 2개로 구분된 구간을 [가], [나], [다]의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더 정밀한 근삿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u>횡축 즉 선박의 폭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세분한 후, 이 구간들의 면적을 합산하면 수직 단면적의 근삿값을 더욱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u>.



<그림>

이처럼 선박의 수직 단면적을 구하면, 이 수직 단면적에 선박의 길이를 곱해 부피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박은 그 형태로 인해 수직 단면적이 변화하고, 특히 선수와 선미 부분에서는 변화 폭이 크므로 다시 심프슨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단면적 곡선이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한다. 먼저 수평축은 일정한 길이의 구역으로 분할된 선박 측면에서의 위치로, 수직축은 선박의 수직 단면적으로 설정한다. 심프슨 공식을 활용해 각 구역의 특정 지점의 수직 단면적을 구한 후 이를 그래프에 점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각각의 점을 연결하면 단면적 곡선이 되는데, 심프슨 공식을 이용해 이 곡선 내부의 면적을 구하면 선박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다. [A]

선박의 배수량은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곱한 값이므로, 선박의 배수량과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이용해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흘수를 알아낸다. 1차 진수 시에는 이 흘수를 기준으로 독 내부에 물을 채우게 된다. 1차 진수 결과 선박에 이상이 없으면 독 외부와 내부의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물을 채워 선박을 띄우는데, 이를 2차 진수라고 한다. 이후

선박이 떠 있는 상태에서, 내부의 물을 빼내 떠오른 수문을 독 입구에서 제거하고, 선박을 독 외부로 끌어낸다.

한편 드라이 독은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운용 중인 선박의 수리와 점검에도 이용된다. 드라이 독 내부에 선박을 가두고 수문을 막은 후 독 내부의 물을 빼 독 내부가 육상과 같은 상태가 되면 수리와 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작업이 종료된 선박은 다시 진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운용 중인 선박은 화물과 연료가 실려 있어 처음 진수할 때와 비교해 배수량에 차이가 생겨 선박의 흘수도 처음 진수할 때와 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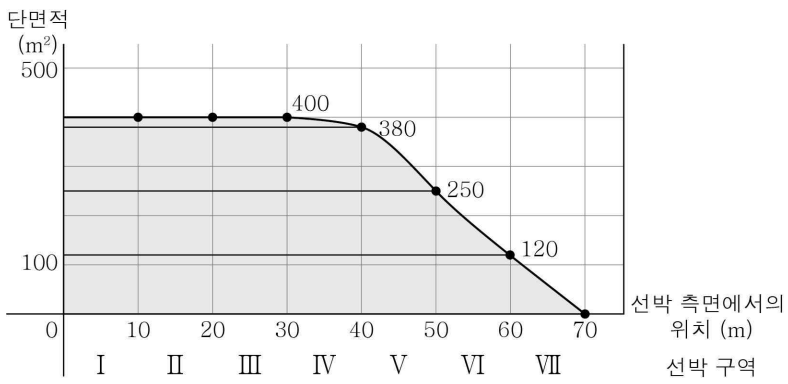
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드라이 독에서는 부력을 이용하여 수문을 제거한다.
② 드라이 독은 선박 진수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시설이다.
③ 드라이 독 내부에서는 선체 구조물을 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④ 드라이 독은 독 내부로 물을 채우고 독 외부로 물을 뺄 수 있어야 한다.
⑤ 드라이 독에서 수리를 마친 선박을 다시 운용할 때에는 진수의 과정이 생략된다.

6.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음은 가상의 흘수를 설정하고 선박 일부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 그린 수직 단면적 곡선이다.



① 각 구역의 단면적 곡선은 물에 잠길 해당 구역의 실제 단면적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겠군.
② 선박 구역을 더 여러 개로 분할하면 선박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실제와 더욱 가깝게 구할 수 있겠군.
③ 단면적 곡선과 수평축, 수직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통해 구역 Ⅰ~Ⅶ의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겠군.
④ 구역 Ⅰ~Ⅲ은 단면적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해당 구역의 물에 잠길 부분의 형태가 직육면체임을 알 수 있겠군.
⑤ 구역 Ⅳ~Ⅶ은 급격한 단면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구역은 선박의 선수나 선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7. ㉠과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차 진수와 2차 진수에서 선박의 배수량이 동일하다면, 이 선박의 흘수는 같을 것이다.
② 두 선박이 배수량이 같더라도 흘수가 다르다면, 두 선박의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부피는 다를 것이다.
③ 흘수가 같은 두 선박의 배수량이 다르다면, 두 선박이 밀어낸 물의 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④ 건조가 완료된 선박에 화물과 연료를 실어 선박의 배수량이 증가한다면, 선박이 받는 부력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⑤ 배수량이 다른 두 선박을 같은 드라이 독에서 수리한다면, 독 내부를 육상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독 외부로 빼내는 물의 양은 배수량이 작은 선박이 배수량이 큰 선박보다 더 많을 것이다.

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곡면의 형태를 사다리꼴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② 곡면이 이루는 면적과 사다리꼴의 면적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③ 세분화된 구간에서 곡면의 면적이 사다리꼴의 면적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④ 사다리꼴들의 크기가 비슷해져 곡면이 이루는 면적의 근삿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⑤ 폭을 더 많이 세분할수록 각각의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계산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9. 윗글의 [드라이 독]과 <보기>의 [플로팅 독]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플로팅 독]은 수상에서 운용하는 독으로 독의 바닥과 측면은 모두 물을 채우거나 빼낼 수 있는, 횡단면이 유자형(ㄩ)인 구조로 되어 있다. 독의 바닥과 측면에서 물을 빼면 독은 물 위에 떠 있게 되는데, 이때 육상과 연결해 선박 건조에 필요한 구조물을 이동시켜 선박을 건조한다. 선박 건조가 완료되면 플로팅 독을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이동시킨 후 독의 바닥과 측면에 물을 채운다. 그러면 플로팅 독이 수중으로 가라앉게 되어 선박은 자연스럽게 물 위에 뜨면서 진수가 완료된다. 하지만 플로팅 독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진수할 수 있는 선박의 무게나 기후 등의 제약을 받는다.

① 드라이 독은 플로팅 독에 비해 선박 건조 과정에서 높은 파도와 같은 해상 조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군.
② 드라이 독은 플로팅 독에 비해 배수량이 큰 대형 선박을 진수하는 데 적합하지 않겠군.
③ 플로팅 독은 드라이 독과 달리 선박 건조가 완료된 후 선박을 진수하는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겠군.
④ 플로팅 독은 드라이 독과 달리 선박 건조나 수리의 과정을 육상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하겠군.
⑤ 플로팅 독은 드라이 독과 달리 선박 진수 시 독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

10.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신입 사원들은 엄격한 선발 단계를 거친 인재들이었다.
② 할머니께서는 대구를 거쳐 부산에 있는 댁으로 가셨다.
③ 나는 돌멩이가 발길에 자꾸 거쳐 걷기가 힘들었다.
④ 우리는 사무실을 거친 후 공사 현장으로 갔다.
⑤ 그는 회장이 되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11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태평시절 ᄇᆞ린 몸이 물외(物外)예 누어더니
갑 업슨 풍월과 임ᄌᆡ 업슨 강산을
조물이 허락ᄒᆞ야 날을 맛겨 ᄇᆞ리시니
ⓐ ᄂᆡ라 ᄉᆞ양ᄒᆞ며 닷토리 뉘 이시리
상주 동쪽 두둑과 낙동강 서쪽 물가예
연하를 헤치고 **동천***을 ᄎᆞᄌᆞ 드러
죽장망혜(竹杖芒鞋)로 처처(處處)의 도라보니
맑은 연못 깁흔 곳의 **노프니는 절벽이오**
ⓑ 옥 ᄀᆞᆺ튼 여흘은 비단 편 ᄃᆞᆺ 흘러 있다
ⓒ 대(臺)도 ᄃᆞᆺ그려니 졍ᄌᆞ도 지으려니
연못도 ᄑᆞ오며 시냇물도 헤오려니
ᄂᆡ 힘 밋ᄂᆞᆫ ᄃᆡ로 초옥삼간(草屋三間) 지어 ᄂᆡ니
ⓓ 갖춘 것 부족ᄒᆞᆫᄃᆡ 경ᄀᆡᄂᆞᆫ 그지업다
(중략)
천 이랑의 맑은 물은 거울을 ᄃᆞᆺ가시며
십 리 어촌은 연수*로 둘럿으니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을
말로 다 이ᄅᆞ오며 아니 보아 어이 알꼬
그ᄂᆞᆫᄏᆞ니와 사시(四時)예 뵈ᄂᆞᆫ 경이 ┐
피여 디ᄂᆞᆫ ᄃᆞᆺ 푸르러 이우ᄂᆞᆫ ᄃᆞᆺ
온갖 바위 비단된 ᄃᆞᆺ 온 골짜기 구슬된 ᄃᆞᆺ [A]
화공 솜씨를 측량키 어려워라
보아 싫증나며 변화를 가늠ᄒᆞᆯ가 ┘
ⓔ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셩품이
세상 물정도 몰ᄅᆞ고 인사(人事)의 우활ᄒᆞ여
공명부귀도 구하기에 재주 없어
빈천 기한(飢寒)을 일싱의 겪고 이셔
낙천지명*을 예 즘짠 드러더니
산수(山水)에 벽*이 이셔 우연히 드러오니
득실도 모ᄅᆞ거든 영욕(榮辱)을 어이 알며
시비(是非)를 못 듯거니 출척*을 어이 알꼬
좁은 방이 **쓸쓸하**고 용슬을 ᄒᆞ덧 마덧*
작은 방이 적막하고 세상 근심 이져시니
책 속의 성현 말씀 오랜 세월예 사우*시며
천지신명은 마음의 비최시며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 ᄒᆞ니
거친 밥 마실 물도 잇든지 못 잇든지
고인 진락(古人眞樂)이 고요함 속의 깁허셔라

– 조우인, 「매호별곡」 –

* 동천 :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
* 연수 : 연기나 안개, 구름 따위에 싸여 뽀얗고 멀리 보이는 나무.
* 낙천지명 :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자기의 처지에 만족함.
* 벽 : 무엇을 치우치게 즐기는 성벽(性癖).
* 출척 :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씀.
* 용슬을 ᄒᆞ덧 마덧 : 방이 좁아서 무릎을 들일 듯 말 듯.
* 사우 : 스승으로 삼을 만한 벗.

(나)

어떤 화문 잡지에서 「근일끽다점풍경(近日喫茶店風景)*」이라고 제한 다음과 같은 풍자만화를 본 일이 있다.

스탠드가 놓이고 액(額)이 걸리고 열대 식물의 분(盆)이 있고 한 것이 배경이요, 그 앞으로 세트가 한 벌.

탁(卓)에는 빈 찻잔과 설탕 단지와 재떨이.

㉠ 그리고서 걸상에는, 탁 밑에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 넣고, 걸상 앉을개 위에 가 무릎을 단정히 꿇고 두 손을 마주 잡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눈을 내려 감고 한 인물이 조용히 앉아 있다.

사족 같으나 원화에 있는 설명을 마저 소개하면

"저 사람 꽤 버티지?"

"참선하나 봐!"

이러한 만화를 구태여 인용하지 않더라도 진작부터 이 두레에도 첨구거사들이 다방인종을 신랄하게 풍자한 썩 재미있는 어휘가 많이 있다.

벽화(壁畫)!

반만 마신 찻잔에서는 김도 오르지 않고 재떨이에는 꽁초만 그득하니 벌써 두 시간이 되었는지 세 시간이 되었는지, ㉡ 그 두 시간 혹은 세 시간을 벽 밑의 세트에 가서 그린 듯 붙박이로 앉아 있는 포즈가 왜 아니 그림 같을꼬! 벽화란 참으로 천금 값이 나가는 한마디다.

또 특히 온종일 다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물만 먹는대서 금붕어라고도 한다. 역시 재치꾼이 아니고는 지어내기 어려운 명담(名談)이다.

[B] 이렇듯 다방인종이 일부 사람에게 (가령 독한 가시는 없으나마) 조롱을 받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나 그러한 조롱을 때우고도 넉넉 남음이 있을 만큼 다방은 전당국과 아울러 현대인에게 다시없이 고마운 물건이 아닐 수 없다. 머리와 몸이 피로하기 쉬운 우리 도시이다.

오피스로부터 풀려나오는 길이라도 좋다. 볼일로 줄창 돌아다니던 길이라도 좋다. 혹은 아스팔트를 거닐러 나왔던 길이거나 영화를 보고 나오던 길이라도 좋다.

아무튼지 피로를 느낄 때, 길옆 거기 어디 다방을 찾아 들어서면 우선 푹신한 쿠션이 있어서 앉을 자리가 편안하다.

기호에 따라 향긋한 홍차든지 쌉쌀한 커피든지 또는 갈증에 좋은 청량음료든지, 이편이 청하는 대로 대령을 한다.

명곡이 구비하다. ㉢ 웬만한 것이면 이편이 귀가 서툴러 못 알아들을 지경이다.

하니, 자리가 편안하겠다, 마시는 것이 흥분제였다, 음악이 아름답겠다. 차를 마신 다음에는 담배라도 붙여 물고 유유히 20, 30분이고 앉아 있노라면 피로는 자연 걷혀진다.

만일 이만한 설비를 제가끔 제 가정에다가 해 놓고 지내자고 해 보아라. ㉣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군색한 조선의 중류 사람으로 땅띔도 못 할* 것이니.

도시에 살자니, 펀둥펀둥 놀고먹는 사람이 아니고는 제각기 제 깜냥에 자작소롬한 용무가 많고, 자주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제집에서 기다려서 만나 보고 하자면 여간만 불편한 게 아니다.

㉤ 한데 다방이면 으레 중심 지대에 있겠다, 항용 다른 볼일과 겸서서 나올 수도 있고 지날 길에 잠시 들를 수도 있다. 더구나 전화가 있으니 편리하다. 웬만한 회담이면, 그러므로 안성맞춤인 것이 다방이다.

가령 의식적으로 피로를 쉰다거나 더욱이 다방을 사랑방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리적인 타산은 말고라도, 혹시 겨울의 모진 추위에 몸을 웅숭크리고 아스팔트 위로 종종걸음을 치다가 문득 눈에 띄는 대로 노방의 다방 문을 밀치고 들어간다고 하자. 활짝 단 가스난로 가까이 푸근한 쿠션에 걸어앉아, 잘 끓은 커피 한 잔을 따끈하게 마시면서 아무 것이고 그때 마침

건 명곡 한 곡조를 듣는 안일과 그 맛이란 역시 도회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낙인 것이요,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 그는 분명 촌맹*이며 가련한 전 세기 사람일 것이다.

– 채만식, 「다방찬」 –

* 근일끽다점풍경 : 근래의 다방 풍경.
* 땅띔도 못 할 : 감히 생각조차 못 할.
* 촌맹 : 시골에 사는 사람.

11. (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② ⓑ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③ ⓒ :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④ ⓓ :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⑤ ⓔ :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 자신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1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갑 업슨 풍월과 임ᄌᆡ 업슨 강산'은 화자가 떠나온 곳으로 '동쳔'과 대조적 성격을 지닌다.
② '노프니ᄂᆞᆫ 절벽이오'는 화자가 '맑은 연못 깁흔 곳'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내면적 경지를 드러낸다.
③ '산수에 벽이 이셔'는 화자가 '빈천 기한'을 일생토록 겪으면서 극복하고자 한 문제를 가리킨다.
④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는 '책 속의 성현 말씀', '천지신명'과 관련하여 화자가 지향하게 된 태도를 나타낸다.
⑤ '거친 밥 마실 물'은 '작은 방'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알려 준다.

13. (나)의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다방의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 : 다방에서 종일토록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 : 다방에서 틀어 주는 음악의 수준이 높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 : 조선의 중류 사람이라면 다방의 모든 설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⑤ ㉤ : 다방이 중심지에만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아쉬움을 강조하고 있다.

14.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자연의 순리에 대한, [B]는 현대인의 모순된 생활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A]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생활에 대한, [B]는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A]는 자연과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B]는 도시 속 공간과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A]는 자연이 보여 주는 다채로운 모습에 대한, [B]는 다방이 지니고 있는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A]는 자연에서 느낀 세월의 흐름에 대한, [B]는 다방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주체는 공간과 관계를 맺으며 공간 속에서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이때 주체가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3인칭의 공간'과 '2인칭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인칭의 공간은 주체인 '나'에게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되는 공간이고, 2인칭의 공간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이다. 3인칭의 공간은 '나'와의 관련성이 높아지면 2인칭의 공간으로 변한다. 2인칭의 공간에서의 체험은 주체에게 3인칭의 공간에서의 체험보다 의미 있는 것이 된다.

① (가)에서 'ᄂᆡ 힘 밋ᄂᆞᆫ ᄃᆡ로 초옥삼간 지어' 냈다고 한 것은, 주체가 자연을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② (가)에서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해 '아니 보아 어이 알꼬'라고 한 것은, 체험을 통해 자연이 2인칭의 공간이 되었을 때 주체가 그 풍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③ (나)에서 '피로는 자연 걷혀진다'라고 한 것은, 주체가 공간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주체에게 '다방'이 2인칭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가)에서 '시비를 못 듯거니'라고 한 것과 (나)에서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라고 한 것은, 특정 공간에서 품게 된 내면의 욕구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체가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⑤ (가)에서 '고인 진락'을 제시한 것과 (나)에서 '안일과 그 맛'을 제시한 것은, 공간이 주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16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법 원리주의에서는 법 규범을 법 규칙과 법 원리로 나누어 파악한다. 법 규칙은 확정적 규범 내용을 갖는 반면 법 원리는 이념적 당위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최대한 실현할 것을 요청하는 규범 내용을 갖는다. 법 원리는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

법 규칙은 구성 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규정된 법 규범이다. 즉 법 규칙은 법 규범이 정하는 요건이 사실로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법 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논리적 작동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법적 삼단논법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은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으로 ⓐ 간주한다. 이때 대전제는 법 규범이고 소전제는 법 규범의 적용 조건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적용 조건의 확인은 조사를 거친 사실이 법률상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 결론은 사실 관계에 법 규범을 적용하여 ⓑ 도출한다. 만약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각각 반대되는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충돌하는 법 규칙들이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新法) 우선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어느 하나의 법 규칙만이 유효하다고 선언하거나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법 원리는 법률 효과의 발생이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로 실현되는 형식을 가지는 법 규범이다. 즉 법 원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 원리들이 충돌할 경우 이익 형량을 통해 해결된다. 이익 형량이란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충돌하는 법 원리들로부터 나오는 법률 효과들 중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선택하는 판단을 ⓒ 칭한다. 그러므로 법 원리 사이의 충돌은 법 규칙과 달리 어느 법 원리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이때 상충하는 이익들의 비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이익 실현의 최적화를 살피는 방법 등이 있다.

법 원리주의에서는 이익 형량의 산물이 법 규칙이라고 본다. 이익 형량의 결과로 획득된 법 규범은 특정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요건과 법률 효과를 갖춘 법 규칙의 형식을 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 원리는 법 규칙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배경적 근거가 된다.

(나)

죄형 법정주의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선의 형법은 처벌의 기준을 명시한 성문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 조선 시대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 조선 시대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조선 시대 형법은 범죄의 종류, 범죄자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정형주의적 형식을 따랐다. 조선 시대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던 대명률의 '단죄인율령조'에 따르면 죄명을 확정할 때는 반드시 율령*을 따르고, 이를 ⓓ 위반할 경우 벌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법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범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형 법정주의와 동일한 원리가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 시대 형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각 조항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 용이했지만 실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열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적용할 때 이에 대응되는 규정이 없어서 법률의 흠결이 생길 경우도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단죄인율령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율령에 기재된 것이 사리(事理)를 모두 규제할 수 없으므로 만약 죄를 결정하는 데 율조가 없으면 율문 중에 가장 가까운 것에 의거하여 더할 것을 더하고 뺄 것은 빼어 죄명을 결정하여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는 임금께 아뢰어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인율비부(引律比附)라고 하는데, 죄명을 결정한 후 형조에 보고하고 임금에게 아뢰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죄를 결정할 때 자의적인 유추가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선 시대의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입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인율비부가 정형주의를 따랐던 조선 시대 형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인율비부는 정형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원된 법 적용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법률들을 추상화하는 특수한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 시대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발견하려는 이들은 인율비부가 조선 시대 형법상 필연적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 율령 : '율'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규정한 형벌 법규이고, '령'은 행정적 명령이나 금지를 규정한 행정법적 규정임.

16.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ㄱ ~ 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항목	학습 내용	
	(가)	(나)
두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ㄱ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ㄴ	ㄷ
⋮	⋮	⋮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ㄹ	ㅁ

① ㄱ : 법을 해석하여 적용할 때 서로 충돌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였음.
② ㄴ : 법 원리주의 관점에서 법 규범을 법 규칙과 법 원리로 구분하였음.
③ ㄷ : 죄형 법정주의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조선 시대 형법을 바라보는 입장들을 제시하였음.
④ ㄹ : 법 규칙과 법 원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둘의 관계를 설명하였음.
⑤ ㅁ : 죄형 법정주의 측면에서 조선 시대 형법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대조하였음.

17.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법관의 독립을 강조해 왔다. 이는 법관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고의 표현으로, 법관은 오로지 법률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법체계의 완결성을 추구하려 했다. 또한 법관의 판결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일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적용 시 외부 영향이나 법관 자신의 주관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법 적용의 정당성을 갖추려 했다. 그 결과 법관은 자신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 등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① (가)에서 법관은 법 규칙에 의한 판결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② (가)에서 법적 삼단논법은 법관의 판결이 논리적이라는 것을 보장하여 법 적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③ (나)에서 율령에 따른 법의 집행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판결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④ (가)와 (나) 모두에서 법을 적용할 때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⑤ (가)와 (나) 모두에서 흠결 없는 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법관의 주관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18. ㉠, ㉡의 입장에서 <보기>의 (a), (b)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 '율'과 '령'에는 조문이 없으나 이치상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자는 태 40을 친다. (지은 죄의) 사리(事理)가 무거운 경우에는 장 80을 친다.

– 대명률, 불응위조 –

(b) '령'으로는 금지한 바 있으나 '율'에 죄명이 없는 경우, '령'을 어긴 자는 태 50을 친다.

– 대명률, 위령조 –

① ㉠: (a)는 '율'과 '령'에 따라 죄의 경중을 물어 형벌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② ㉠: (a)는 처벌할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③ ㉡: (a)는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그에 대한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우리의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④ ㉠: (b)는 죄명이 없어서 발생하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령'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⑤ ㉡: (b)는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이 부정될 수는 없다.

1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법 규칙과 달리 법 원리는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법 규칙들이 서로 맞부딪치면 하나의 규칙만이 채택되어 그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법 규칙과 달리 법 원리는 이익 형량을 통해 충돌하는 사안을 해결한다.
④ 법 원리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실현될 수 있다.
⑤ 법적 삼단논법에서 법 규범은 대전제로 활용된다.

20.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선 시대는 율령에 어긋나더라도 경우에 따라 형벌을 가감하는 사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② 조선 시대의 형법이 범죄에 대한 사안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율비부가 사용되었다.
③ 조선 시대는 당대의 관습에 따라 범죄 여부와 형량을 판단했기 때문에 성문화된 형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조선 시대의 형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율령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곤란했다.
⑤ 조선 시대의 형법은 정형주의에 따라 범죄자나 피해자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벌을 내렸다.

21.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여긴다
② ⓑ: 바로잡는다
③ ⓒ: 일컫는다
④ ⓓ: 어길
⑤ ⓔ: 쉬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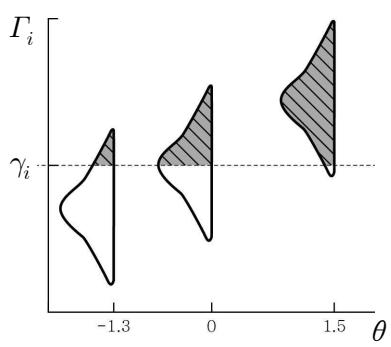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물의 속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치를 부여하는 절차를 측정이라고 한다. 가시적 속성의 경우 직접 측정이 가능하지만 인지적 영역과 같은 잠재적 속성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간접 측정을 한다. 이때 검사의 질은 각 문항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문항의 특성은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등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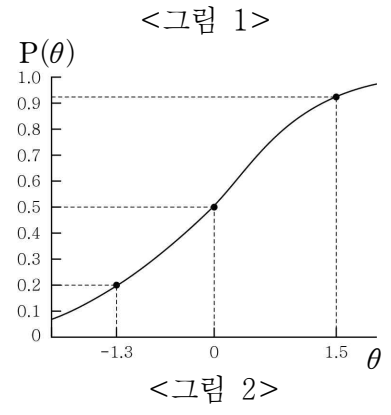
1920년대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고전 검사 이론은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검사 이론이다. 고전 검사 이론에서 피험자의 능력은 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의 총점으로 결정한다. 또 문항의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난이도는 응답자 중 그 문항의 답을 맞힌 응답자의 수가 많을수록 낮다고 나타낸다. 그리고 어떤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별도는 해당 문항의 답을 맞혔는지의 여부와 총점의 관계를 의미하는 지수로 나타낸다. 만약 특정 문항에 대해 총점이 높은 피험자는 답을 맞히고, 총점이 낮은 피험자는 답을 틀렸다면 이 문항은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라 분석한다. 고전 검사 이론을 활용하면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문항의 특성이 피험자 집단에 따라 달라지거나 피험자의 능력이 검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피험자의 능력은 고유하며,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험자의 응답에 기반하여 확률적으로 접근하는데, 이때 문항 특성 곡선이 활용된다. 문항 특성 곡선은 피험자의 능력(θ)에 따라 어떤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S자 형태의 곡선이다.

[A] i라는 문항이 제시되었을 때 능력이 낮은 피험자라 하더라도 일부는 문항의 답을 맞힐 수도 있을 것이며 능력이 높은 피험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반드시 답을 맞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i 문항에 응답하는 경향(Γ_i)은 θ에 따라 정규 분포로 그려지게 될 것이고, 문항의 난이도가 γ_i일 때 Γ_i가 이보다 높으면 문항의 답을 맞히게 될 것이다. 즉 <그림 1>과 같이 θ가 -1.3, 0, 1.5일 때 각각의 정규 분포가 그려진다면 γ_i보다 위에 있는 면적이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되어, θ가 -1.3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0.2, θ가 0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0.5, θ가 1.5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0.92로 얻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각 능력에서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인 $P(\theta)$를 구하고, 이를 연결하는 곡선을 그리면 <그림 2>와 같은 문항 특성 곡선이 나타난다.



<그림 1>



<그림 2>

문항 특성 곡선은 능력이 낮은 집단의 $P(\theta)$는 낮고, 능력이 높은 집단의 $P(\theta)$는 높음을 나타내는 증가함수이다. 문항 특성 곡선에서 문항의 난이도는 위치 모수로 나타난다. 위치 모수는 문항의 $P(\theta)$가 0.5일 때 그에 대응하는 θ 지점을 의미한다. 위치 모수는 오른쪽에 있을수록 어려운 문항으로 추정된다. 반면 문항의 변별도는 척도 모수로 나타난다. 척도 모수는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높다고 추정된다.

문항 반응 이론에서 θ는 검사를 구성하는 각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피험자가 n개의 문항에 응답했다면 각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에서 θ를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여 $P_1(\theta)$, $P_2(\theta)$, …, $P_n(\theta)$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각각의 값은 ㉮ 피험자의 실제 응답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θ의 수치를 바꾸어 가면서 그 차이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매우 작아지는 θ의 수치를 구해 이를 피험자의 능력으로 추정한다.

2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 검사 이론의 경우 문항의 변별도는 피험자의 수와 피험자의 총점의 관계를 나타낸다.
② 고전 검사 이론의 경우 동일한 피험자라도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피험자의 능력이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③ 문항 반응 이론의 경우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문항의 특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④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 모두 피험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문항의 특성을 분석한다.
⑤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 모두 피험자의 잠재적 속성을 측정하는 검사의 질을 분석하는 데 쓰인다.

23. 고전 검사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 1>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추론하였을 때,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1 >

4명의 피험자가 4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응답 결과를 얻었다.

문항 / 피험자	1번	2번	3번	4번	총점
A	1	1	1	1	4
B	1	1	0	1	3
C	0	0	0	1	1
D	1	0	1	1	3

※ 응답한 문항의 답을 맞힌 경우 1점, 틀린 경우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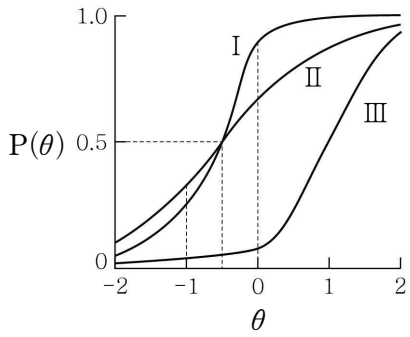
< 보 기 2 >

○ 피험자 B와 피험자 D는 ㉠ 때문에 능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 1번 문항이 3번 문항보다 ㉡ 할 수 있다.

	㉠	㉡
①	총점이 동일하기	난이도가 낮다고
②	총점이 동일하기	난이도가 높다고
③	응답한 문항 수가 동일하기	변별도가 낮다고
④	응답한 문항 수가 동일하기	변별도가 높다고
⑤	응답한 문항 수가 동일하기	난이도가 낮다고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Ⅰ: 1번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
Ⅱ: 2번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
Ⅲ: 3번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

분석한 내용	판단
위치 모수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3번 문항이 가장 어렵겠군.	적절함. ·· ①
능력이 0보다 높은 피험자들을 변별하는 데는 3번 문항보다 1번 문항이 적합하겠군.	적절함. ·· ②
능력이 −2인 피험자가 2번 문항을 맞힐 확률은 3번 문항을 맞힐 확률보다 낮겠군.	적절하지 않음. ····· ③
P(θ)가 0.5일 때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θ는 동일하기 때문에 1번 문항이 2번 문항보다 어렵겠군.	적절하지 않음. ····· ④
$-1 < \theta < 0$ 구간에서 2번 문항은 3번 문항에 비해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 피험자를 변별하는 정도가 크겠군.	적절함. ·· ⑤

25.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i 문항보다 쉬운 문항이 제시된다면 피험자의 능력이 -1.3인 집단과 피험자의 능력이 0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모두 높아지겠군.
② i 문항에 대해 피험자의 능력이 -1인 집단의 응답 경향을 나타내는 정규 분포에서 γ_i보다 위에 있는 면적은 0.2보다 작겠군.
③ i 문항에 대해 피험자의 능력이 1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피험자의 능력이 0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보다 높겠군.
④ i 문항보다 쉬운 문항이 제시된다면 피험자의 능력이 1.5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0.92보다 높겠군.
⑤ i 문항보다 어려운 문항이 제시된다면 피험자의 능력이 0인 집단의 답을 맞힐 확률은 0.5보다 낮겠군.

2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항 특성 곡선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고유한 능력을 확률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② 문항 특성 곡선이 문항의 위치 모수와 척도 모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③ 각 문항의 문항 특성 곡선에 따라 피험자의 능력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④ 피험자가 문항을 맞힐 확률이 문항의 변별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⑤ 피험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피험자의 능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윤선옥은 박 소저와 혼례를 올린다. 전란으로 선옥은 첫날밤에 박 소저와 헤어져 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달빛은 서산으로 넘어가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사는 두견이는 슬피 울고, 이 산 저 산에 잔나비 슬피 울었다. 새소리가 등등하고, 물소리가 와글와글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 층암절벽에 높이 올라가 삼경 사경 깊은 밤에 어디를 향할 것인가? ㉠부모님과 낭자가 생각나서 대성통곡하니, 풀과 나무도 슬퍼하는 듯하였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산이 높고 높으니 틀림없이 이 가운데 절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엄기엄 올라가는데, 미풍이 한차례 부는 가운데 경쇠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종소리를 따라 점점 올라가니, 상상봉 높은 곳에 단청이 고와 아름다운 누각이 공중에 솟아 있으므로 마음속으로,

'이것은 분명히 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점점 들어갔다. 들어가니 적적한 공당(空堂)에 인적이 없었다. 두루 배회하다가 현판을 살펴보니, 황금자로 '운산각이라'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 옆에 앉았는데, ㉡'함경도 종성 춘산동의 도참판의 보상 아들 삼국도원수 인국대승상 윤선옥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선옥이 마음속으로 괴이하게 여겨 방황하다가 한쪽으로 들어가니 벽에 금자로 썼기를, '종성의 윤선옥은 이 집의 왼편 층암절벽 위로 올라가면 볼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옥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분명히 산신령이 인도함이구나.'

하고 왼편으로 가 보니 과연 층암절벽이 천 장 만 장 높이로 솟아 있었다. 선옥이 바위를 움켜잡고 절벽 위로 올라가니, 심회가 위태롭고 두려웠다. 겨우겨우 올라 가장 높은 봉우리에 다다르니 층암절벽 위에 한 칸 초가집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떠한 노인이 청삼을 입고 운관을 쓰고 왼손에는 청룡검을, 오른손에는 백옥선(白玉扇)을 들고 앉아 있으므로 선옥이 황공하여 문밖에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소자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온데 난을 피하여 오다가 제 분수에 지나치게 선경에 들어왔으니 죄가 무거워서 죽어도 안타깝지 아니 하오이다."

[A]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천상의 북두칠성으로서 옥황상제께 죄를 입어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노라. 어젯밤에 남악 산신령이 나에게 편지를 하기를, 종성의 윤선옥이 천상 세계의 태생으로 내일이면 올 것이니 안존(安存)하게 하라고 하기에 그대 윤선옥인 줄 알았노라. 그때 천상에 있을 때는 우리를 눈 아래로 보더니 이제 도리어 나에게 몸을 굽혀 공손하니 이것이 이른바 반복지사(反復之事)로구나."

하고 선옥을 불러들이므로 선옥이 일어나 공경하게 두 번 절하고 앉은 후에 세상의 일을 말하였다.

노인이 말하였다.
"세상이 시끄럽지만 오래지 않아 난이 평정될 것이다. 그대는 재주가 비범하고 모든 일이 민첩한 듯한데 신기 묘수를 다 아느냐?"

선옥이 말하였다.
"소자는 본디 총명하지 못하고 재주가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 신기 묘수를 알겠습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처하여 영웅과 장상(將相)의 재주를 모르면 별기*라. 잘은 모르지만 그대는 내실이 있을 것이니 약간만 신기 묘수를 배우라."

하고 즉시 서안을 열어 한 전책을 내어 주면서,

"이 책은 육경 육갑을 익혀 풍운조화를 부릴 수 있는 천만병서라네."

라고 하니, 선옥이 받아 두어 번 읽고 육경 육갑을 외우고 둔갑술로 몸을 숨김과 풍운조화를 부림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하였다. 노인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윤 진주는 진실로 만고의 제일가는 영웅이로다!"

– 작자 미상, 「윤선옥전」 –

* 별기 : 따로 갈라진 길. 여기서는 대장부라도 장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됨.

(나)

[앞부분의 줄거리] 원강아미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인 사라도령과 헤어져 천년장자의 종이 되고 할락궁이를 낳아 기른다.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집을 떠나자 천년장자는 원강아미에게 할락궁이의 행방을 추궁한다. 이 과정에서 원강아미는 할락궁이가 간 곳을 말하지 않겠다고 세 번 다짐한다. 이에 천년장자는 원강아미를 죽인다.

아이가 할락궁이를 데리고 꽃감관한테로 가자 꽃감관이 말했다.

"여봐라. 넌 어떠한 아이가 되느냐? 친가는 어디고 외가는 어디냐?"

"㉣ 우리 조부는 짐정 나라 짐정국이고 외조부는 임정 나라 임정국이며 우리 아버지는 저승의 서천꽃밭 꽃감관 사라도령입니다. 어머니는 임정국 원강아미인데 천년장자 집의 원강댁이가 됩니다. 나는 신산만산 할락궁이입니다. 부친을 찾아온 길입니다."

"그렇다면 너한테 증표가 있느냐?"

할락궁이가 얼레빗 한 짝과 참실 반 묶음을 꺼내어서 꽃감관이 가진 것과 맞춰 보니 바짝 붙어서 딱 맞았다.

"네가 내 자식이 분명하다."

하인 하님을 부르면서,

"여봐라. 내 자식이 왔으니 나 먹듯이 밥상을 차려 와라."

"아버님아 아버님아. 밥상을 차려 온들 내가 아버지 무릎에 한번 앉아 보지도 못했는데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 무릎에 앉아 보아라."

㉤ 할락궁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오줌 누는 모양 똥 누는 모양 갖은 어리광을 다 해 두고서 밥상을 받을 적에 사라도령이 물었다.

[B]

"네가 이리 올 적에 웬 물이 발등에 뜨지 않더냐?"

"떴습니다."

"그게 네 어머니 첫 다짐 받던 눈물이로다. 또 오다 보니 뽀얀 물이 무릎에 뜨지 않더냐?"

"떴습니다."

"그건 재다짐 받을 적에 네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로다. 또 오다 보니 노란 물이 자개미*에 뜨지 않더냐?"

"떴습니다."

"그건 너의 어머니 삼 다짐 받으며 흘린 눈물이로다. 또 오다 보니 빨간 물이 잔등에 뜨지 않더냐?"

"떴습니다."

"그것은 네 어머니 죽을 때 흐른 피로다."

(중략)

사라도령이 또 말했다.

"지금 너의 어머니가 죽어서 뼈만 앙상하다. 가서 너의 어머니 뼈를 찾아와라."

아들 할락궁이를 데리고 서천꽃밭 꽃구경을 시켜 주면서,

"이건 뼈오를꽃이고 이건 살오를꽃이며 이건 오장육부간담 만들꽃이다. 이건 웃음웃을꽃이고 이건 말가를꽃이며 이건 시들꽃이고 이건 생불꽃이다. 이건 불붙을꽃이고 이건 멸망꽃이며 이건 악심꽃이다."

가리키는 대로 할락궁이가 꽃을 모두 따니까 마지막에 꽃감관은 때죽나무 회초리를 꺾어 주면서 말했다.

"이 꽃들과 회초리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라. 네 어머니 시신을 찾아서 이것들로 살려 내라."

– 작자 미상, 「이공본풀이」 –

* 자개미 : 겨드랑이나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

2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② (나)는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공간의 애상적인 분위기를 통해 인물의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28.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부모님과 낭자를 만날 수 있다는 선옥의 기대감을 짐작할 수 있다.
② ㉡ : 선옥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보여 주고 있다.
③ ㉢ : 선경을 찾은 데서 비롯된 선옥의 안도감이 드러나고 있다.
④ ㉣ : 할락궁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⑤ ㉤ : 할락궁이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결핍을 느껴왔음을 엿볼 수 있다.

29.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이 겪게 될 시련이 자연물을 통해 암시되고 있다.
② 인물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③ 인물이 자신의 동의를 구하는 상대의 말에 설득당하고 있다.
④ 인물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는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⑤ 인물이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는 말을 통해 상대를 위로하고 있다.

30.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와 (나)를 감상하는 활동을 한 내용이다.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가)는 고전 소설이고, (나)는 서사 무가입니다. 두 작품은 모두 주인공의 비현실적 공간 체험을 서사 전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비현실적 공간으로의 진입, 조력자와의 만남, 주인공의 신분이나 혈연관계 확인, 신이한 능력의 발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의 획득, 주인공에 대한 조력자의 인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 (나)의 서사 전개 과정을 고려하여 이 체험에 관한 내용을 비교해 봅시다.

학생 1 : (가)의 선옥은 높이 솟아 있는 '층암절벽'을 올라, (나)의 할락궁이는 점점 깊어지는 '물'을 지나 비현실적 공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 ⓐ

학생 2 : (가)에서는 '천상의 북두칠성'인 인물이, (나)에서는 '저승의 서천꽃밭'을 관리하는 인물이 각각의 주인공이 만나는 조력자입니다. ····· ⓑ

학생 3 : (가)에서는 남악 산신령이 노인에게 보낸 '편지'로, (나)에서는 '얼레빗 한 짝'과 '참실 반 묶음'으로 주인공의 신분이나 혈연관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

학생 4 : (가)에서는 선옥이 받은 '천만 병서'가, (나)에서는 할락궁이가 받은 '꽃들'과 '회초리'가 주인공이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 ⓓ

학생 5 : (가)에서는 선옥이 '둔갑술로 몸을 숨김과 풍운조화를 부림'을 통해, (나)에서는 할락궁이가 '꽃을 모두 따'는 것을 통해 각각의 조력자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지인의 과수원에서 어린 딸과 시간을 보내며 '아재비'를 떠올린다. 남로당*의 고위 간부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도망쳐 '나'의 집 과수원에서 일한 '아재비'는 '나'를 보살펴 주며 작은 호수를 만들어 주었었다. '아재비'와의 일을 떠올리다가 딸과 놀아주던 '나'는 품에 안은 딸이 잠들자 딸에게 속삭인다.

아이 머리의 묵직한 무게가 가슴에 와 닿았다. 긴장이 풀린 아이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애, 밖은 **전쟁**이다. 밖은 늘 전쟁이었다. 어느 해 어느 시어느 대륙에 전쟁이 멈춘 적이 있었더냐. 아무리 방으로 방으로 숨어들고 아무리 방패를 꺼내 들어도 사방의 문틈으로 전쟁의 냄새는 새어 들어오지. 그 냄새는 딱딱하고 질기고 직선으로 세상을 자르는 그런 **고약한 냄새**지. 아, 너를 위해 세상의 미운 단어들을 모두 바꿀 수 있다면…… 모든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 단어에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을 주고 모든 악취 나는 단어에 지상의 들꽃 이름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너도개미자리, 둥근바위솔, 찔레, 명아주, 두메투구풀, 미나리아재비, 땅비싸리, 무릇꽃, 청사조, 패랭이, 쑥부쟁이, 아 그리고 채송화, 채송화……. 이애, 너는 아무래도 시인이 되어야겠다. 미운 단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악취에 **향기**를 주는, 입을 벌리면 **음악**이 나오는…… 너는 아주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 발가락, 땅콩, 코딱지 같은 단어를 예쁘게 발음할 줄 아는 너. 처음 글을 배울 때 네 성인 '박' 자를 삐뚤삐뚤하게 써 놓고 글자가 웃고 있다고 말하던 너. 이 먼 과수원의 오수의 나른한 틈새에까지 비집고 들어오는, 아 비릿한 그 냄새를 이애, 빨리 지워 다오. 아주 강력한, 아주 향긋한 방취 살포제인 너의 웃음. 이애, 그토록 짙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너는 아마도 외계인인 모양이다. 그래서 네가 자전거에만 오르면, 너의 그 짧고 가는 다리를 소금쟁이만큼 빠르게 놀려 앞으로 갈 때면 나는 그만 가슴이 무섭게 뛰기 시작하는 걸 느낀다. 너의 자전거에 가속이 붙고 앞바퀴가 들려지고, 공중으로 공중 저 높이로 솟아오르는 것이 보이는구나.*

작은 호수가 있네. 호수 주변에 채송화를 심었네.
달력에 찍은 수많은 점들이 언젠가 별이 되려니.
살.사랑.사람.살림.서리.성에.잘 살으오…….

그가 남긴 낡은 ㉠공책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갈겨쓴, 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딱딱한 어투의 글들에 섞여 이처럼 정갈하게 정리해서 쓴 모호한 암호 문자들도 적지않이 들어차 있었다. 그 암호 문자 중의 몇 개는 낱장에 옮겨져, 몇 년에 한 번씩 딱지 편지로 접혔다. 변함없는 기름한 글씨. 변함없이 세 번 돌려 접은 딱지 편지. 글쎄 그것은 꼭 암호 문자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와의 첫 여행에서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십여 년에 걸쳐 모두 다섯 번을 나는 그런 이상한 편지 심부름을 했다. 수신인은 그의 처자였다.

(중략)

그가 간 후 한참이 지나, 이미 야산으로 변해 버린 과수원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갔었다. 인력도 달리었거니와 무엇보다도 오래된 아버지의 투병으로 진 빚 감당으로 팔려 나간 과수원에 방책을 만들러 벌써 남자 서너 명이 와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딸애의 출산을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은 때였다.

과수원의 길이 곧게 뻗어 나가는 게 보이는 호숫가에 앉아서 나는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낯익은 풍경들 하나하나에 나의 애정 어린 시선을 나누어 주었다. **과수원**은 황폐했어도 내게는 **평화**였다. 설령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다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무언의 동반자인 나무들은, 내일에 다가올 걱정에는 무관심한 채 늠연하게 푸른 하늘에 미세한 실핏줄을 그리고 있었다. 잎이 다 진 가을이었던 것이다.

그 비어 있는 길 위에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아재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엉킨 아재비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늘 할 말이 많았다. **단둘이서**. 나는 그럴 때의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에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 혈혈단신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 내려온 아버지였던 만큼 건강이 좋았던 젊은 시절만 해도 읍으로 나가서 또는 내가 다니는 국민학교에 와서 가끔 반공 강연을 하곤 했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여 주어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한 강연들이었다.

바로 그가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재비를 과수원에서 발견했고 그의 불안한 신원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며 그와 일생의 의형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준 아재비의 공책에 보면 자연을 읊은 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쓴 글씨이기는 하지만 그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두서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가 겪어 온 사고의 모든 갈피들. 어떻건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겼던 것 같지도 않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그 이전 혹은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곳에 그들의 삶과 함께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과수원의 사방에 그들의 속삭임이 있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가 끝도 없는 속삭임을 만들었던 것일까. 특히 늦은 밤의 집 앞에 내놓은 **평상 위**와 과수원의 **좁은 길들**, 야산 밑에 패인 **호수 주변**…….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무엇보다도 호수 주변에.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지난하던 과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 최윤, 「속삭임, 속삭임」 –

* 남로당: 1946년 11월 서울에서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 노동당의 줄임말.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태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과거 사건의 비현실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서술자의 고백적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에 부여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④ 시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인물의 행위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⑤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주변 인물들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32.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아재비는 거동하기가 어려웠던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겠군.
② 아재비가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아버지가 그의 신원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이겠군.
③ 어린 시절 과수원의 호숫가에 앉아서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을 '나'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았겠군.
④ '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과수원을 보전하기 힘들었던 것은 인력 부족과 아버지의 오랜 투병 때문이었겠군.
⑤ 어린 시절 국민학교에서 아버지가 한 반공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겠군.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속삭임, 속삭임」은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아버지와 아재비가 나눈 속삭임'을 통해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을 주제 의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자의 속삭임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내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후자의 속삭임은 인물들이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제시되며 공간과 연계된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속삭임을 통해 형성된 대조적 의미 구조는 후자의 속삭임과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며 주제 의식의 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① '전쟁'의 이미지인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과 대조되는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은 '과수원'에 담긴 '평화'의 의미와 어울려 주제 의식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② '고약한 냄새'를 지울 수 있는 '향기', '음악' 등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며 아버지와 아재비의 속삭임에서 '나'가 느낀 아름다움과 조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③ '나'가 딸에게 '고전적인 시인이어야겠다'라고 한 말은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이 투영된 것으로 속삭임들 간의 유기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④ '단둘이서' 속삭였던 아버지와 아재비의 모습은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대립을 초월한 화해와 공존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⑤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은 과수원의 '평상 위', '좁은 길들', '호수 주변' 등의 공간과 연계되어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3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딱지 편지에 인용된 문장이 본래 너무도 딱딱한 어투였음을 보여 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② 자연을 읊은 글들로만 가득 차 있어 '나'가 아재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다.
③ 아재비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들을 어린 '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④ 아재비가 아버지와 의형제 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음을 '나'가 깨닫게 해 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⑤ 아재비가 과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아재비의 신념에 변화가 없었음을 '나'가 짐작하게 해 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않다', '못하다', '말다', '아니다', '없다' 등의 부정 의미의 용언과 주로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다. 이러한 단어는 여러 품사에서 나타나는데, 단어에 따라 호응하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이 문맥적으로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에 쓰이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나는 그곳에 차마 가지 못했다(*나는 그곳에 차마 갔다)'와 같이 '차마'는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가지 못했다'와 어울린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차마 가겠니?'와 같은 의문문이 '나는 그곳에 차마 갈 수 없다(가지 못한다/가지 않는다)'를 뜻함으로써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문맥일 때에는 '차마'가 쓰일 수 있다.

한편, 부정문 형식의 문장에 함께 쓰여 그 문장의 의미를 강한 긍정으로 해석되게 하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부정문에 '이만저만'을 함께 써서 '문제가 이만저만 어렵지 않다'가 되면 '문제가 매우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이만저만'으로 인해 문장의 의미가 '어렵다'를 강조하는 긍정으로 해석된 것이다.

[A]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들은 그 의미나 형태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뿐만 아니라 그렇제 않은 문맥에서도 쓰이던 단어가 현대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과거에는 용언의 어간에 '-지 아니하다'를 결합한 형태로 쓰이던 것이 시대에 따라 '-잖다'나 '-찮다'로 축약된 형태가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축약되기 전 형태의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그 일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있다.
ㄴ. 화단의 꽃들이 **여간** 탐스럽지 않다.
ㄷ. 나는 밤새도록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
ㄹ. 그 아이들이 **좀처럼** 제 말을 듣겠습니까?
ㅁ. *나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했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① ㄱ의 '아무런'은 긍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는 문맥에서 사용될 수 없군.
② ㄴ의 '여간'은 '탐스럽지 않다'라는 부정 의미를 강조하고 있군.
③ ㄷ의 '밖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이고 있군.
④ ㄹ의 '좀처럼'은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문맥에서 쓰이고 있군.
⑤ ㅁ의 '옴짝달싹했다'를 '옴짝달싹하지 못했다'로 바꾸면 어법에 맞겠군.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했을 때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자 료]		
㉠	국어사 자료	○ 이거슨 **귀치 아니컨만**은 보내ᄂᆞ이다 [이것은 귀하지 아니하지마는 보내나이다]
	현대 국어	○ 그날은 몸이 아파 만사가 다 **귀찮았다**.
㉡	국어사 자료	○ 봉녹 밧씌도 **별로** 먹을 거슬 주시며 [봉록 밖에도 특별히 먹을 것을 주시며] ○ **별로** 인ᄉᆞᄒᆞᆯ 톄도 업스니 [특별히 인사할 모양도 없으니]
	현대 국어	○ 요즘은 공기가 **별로** 좋지 않다. ○ 나에게 그는 **별로** 매력이 없다.
㉢	국어사 자료	○ 무슨 말이든지 다 못드르면 **시원치 안니ᄒᆞ여** [무슨 말이든지 다 못 들으면 시원치 아니하여]
	현대 국어	○ 대답이 **시원찮다**.

< 보 기 >

ⓐ ㉠에서, 현대 국어 '귀찮다'는 '귀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로,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임을 알 수 있다.
ⓑ ㉡에서, 현대 국어 '별로'와 달리, 국어사 자료 '별로'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은 문맥에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에서, 현대 국어 '시원찮다'는 '시원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로,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 ② ⓑ ③ ⓐ, ⓑ ④ ⓐ, ⓒ ⑤ ⓑ, ⓒ

37.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문장에서 부사어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됩니다.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의 ⓐ ~ ⓔ 중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를 찾아볼까요?

○ 오늘의 행복은 ⓐ 내일의 성공만큼 중요하다.
○ 이곳의 토양은 ⓑ 토마토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다.
○ 너는 ⓒ 너에게 주어진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 형은 ⓓ 머리가 덜 마른 상태로 국어 교과서를 읽었다.
○ ⓔ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8.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탐구 주제 : ‘홅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훌따]로 발음될까?

[자료]

(1) 종성의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2)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면 두 개의 자음 중 하나만 발음한다.
(3) 종성의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4) 갈다[갈다], 날겠다[날겓따], 거칠더라도[거칠더라도]

탐구 과정 :

가설 1 : 어간의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난 후에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다.
→ ‘[자료](4)’에서 확인되듯이, 어간이 (㉠) 끝날 때 그 어간 바로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음.

가설 2 :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 후에 어간의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난다.
→ ‘[자료](1)’의 현상이 어간 종성에서 일어나 어간 종성의 ‘ㅌ’이 (㉡), ‘[자료](3)’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이후 ‘[자료](2)’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음.

탐구 결과 : ‘가설 1’을 기각하고 ‘가설 2’를 받아들인다.

	㉠	㉡
①	‘ㄷ’으로	‘ㄷ’으로 교체된 후
②	‘ㄷ’으로	탈락하게 된 후
③	‘ㄹ’로	‘ㄷ’으로 교체된 후
④	‘ㄹ’로	탈락하게 된 후
⑤	‘ㅆ’으로	‘ㄷ’으로 교체된 후

39. <보기>의 ㉠과 ㉡이 모두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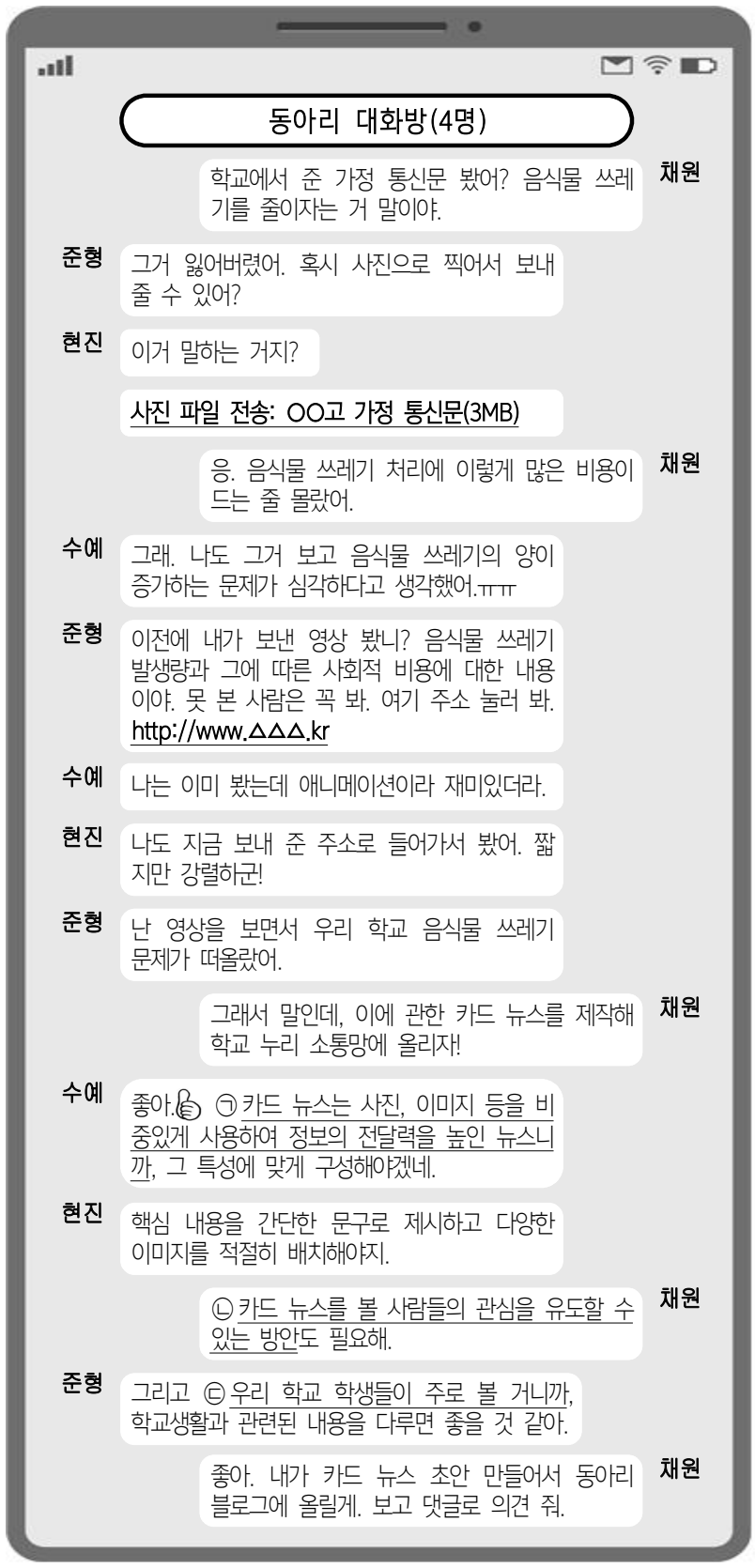
< 보 기 >

국어의 높임 표현은 조사나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 <u>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u>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또한 국어에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도 존재한다. 겸양의 표현은 일부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 <u>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u>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① 저희가 어머니께 드렸던 선물이 여기 있네요.
②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걸어가신다.
③ 제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④ 이 문제는 아버지께 여쭈어보자.
⑤ 지나야, 가서 할머니 모시고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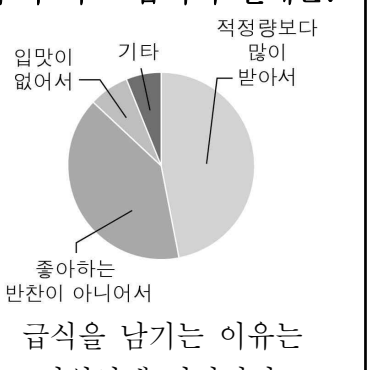
[40 ~ 42] (가)는 동아리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채원’이 제작해 블로그에 올린 카드 뉴스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1/6



2/6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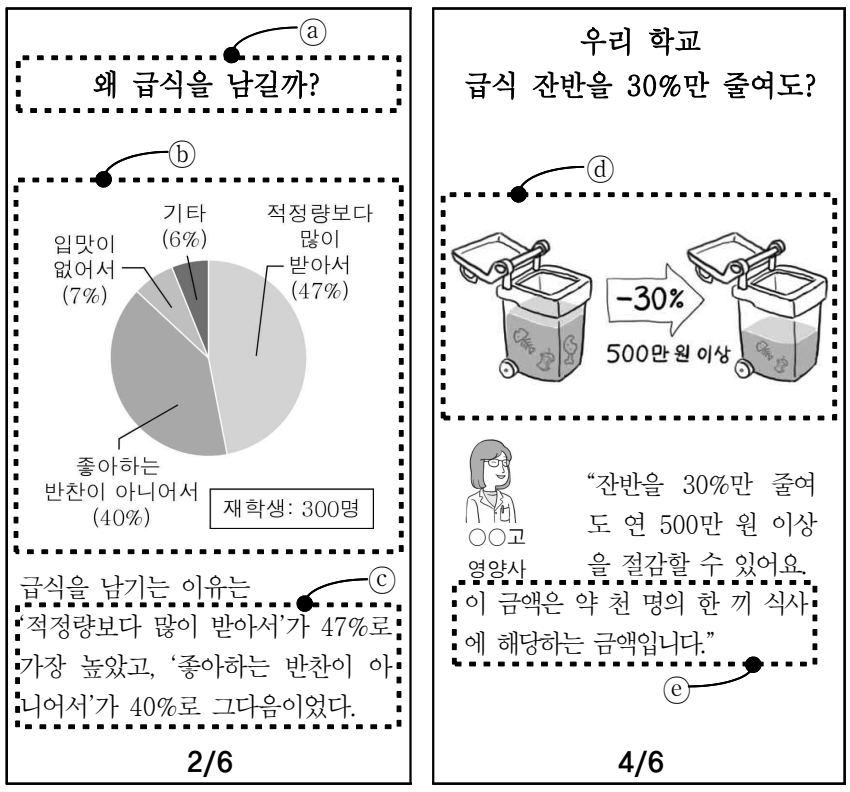
① '현진'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문서 파일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② '수예'는 매체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의 전달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준형'은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④ '채원'은 카드 뉴스의 제작을 제안하며 매체가 가지는 정보 전달의 파급력을 밝히고 있다.
⑤ '채원'과 '수예'는 그림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41. '채원'이 ㉠~㉢을 고려하여 세운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u>않은</u> 것은?

① ㉠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급식 메뉴의 종류를 사진으로 제시해야겠어.
② ㉠을 고려하여,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 정보의 전달력을 높여야겠어.
③ ㉡을 고려하여, 이미지를 결합한 글자를 사용해 카드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어야겠어.
④ ㉢을 고려하여, 우리 학교의 급식 잔반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⑤ ㉢을 고려하여, 잔반을 줄였을 때의 혜택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부각해야겠어.

42. 다음은 (나)에 달린 '댓글'이다. 다음을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현진 : 두 번째 카드의 제목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준형** : 맞아. 제목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그래프에 조사 대상의 인원과 각 항목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도 밝혀 주자.
↳ **현진** : 그래프에서 특별히 강조할 내용은 따로 정리해 주자.
수예 : 고생 많았어. 그런데 네 번째 카드의 삽화는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 **현진** : 그게 좋겠다. 그리고 잔반 줄이기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① ⓐ ② ⓑ ③ ⓒ ④ ⓓ ⑤ ⓔ

[43~45] (가)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이고, (나)는 신문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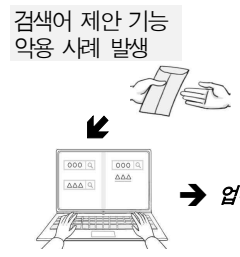
(가)

[장면 1] 진행자 :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많으시죠?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u>이 소식을 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u>.

[장면 2] 기자 : 검색어 제안 기능은 전체 이용자의 검색 횟수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u>어떤 방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u>.

[장면 3] IT 전문가 : 이렇게 검색창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특정 업체명을 검색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수천 회 반복하면 특정 단어를 검색할 때 특정 업체가 검색어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장면 4]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가를 받고 검색어 제안 기능에 특정 업체명이 제시되도록 하여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면 5]

포털 사이트 관계자: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 검색어가 제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차단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해당 결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면 6]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

6면 2021년 ×월 ×일 화요일 **사회** 제 1210호 ☆☆신문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토론회 열려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 차이 확인

최근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일 ◎◎기관의 주관으로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언론 정보 전문가는 검색어 제안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검색어 제안 기능의 운영은 그 주체인 포털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한편 시민 단체 대표는 최근 부정한 방법에 의해 검색어가 제안됨으로써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또한 선량한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토론회를 방청한 한 시민은 "자율성과 공익적 가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가 고려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 기자 oooo@OOO.co.kr

43. (가)에 사용된 정보 제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면 1]에서는 뉴스 수용자가 보도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화면의 하단에 자막으로 보도 내용의 요점을 제시한다.
② [장면 2]부터 [장면 5]까지는 뉴스 수용자가 중간부터 뉴스를 시청하더라도 보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 한쪽에 핵심 어구를 고정하여 제시한다.
③ [장면 3]에서는 뉴스 수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검색어 제안 기능의 악용 사례를 전문가의 시연을 통해 보여 준다.
④ [장면 4]에서는 보도 내용에서 제시하는 사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를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⑤ [장면 6]에서는 보도 내용에서 다룬 다양한 정보를 뉴스 수용자가 효과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들을 요약한 화면을 보여 주며 마무리한다.

44. (가)와 (나)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③ ㉢: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보도 내용과 관련한 수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④ ㉣: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 내용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⑤ ㉤: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토론회에 다녀온 시민의 견해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뉴스 생산자는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서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선택한다. 그리고 뉴스 수용자가 문제 상황에 관심을 지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뉴스를 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한다. 또한 뉴스 생산자는 쟁점이 되는 화제를 다룰 때 공정성 있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① (가)에서 뉴스 생산자가 화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② (가)에서 뉴스 생산자가 보도를 시작하며 수용자의 경험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③ (나)에서 뉴스 생산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입장을 모두 보도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④ (나)에서 뉴스 생산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⑤ (가)와 (나) 모두에서 뉴스 생산자가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시의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